계방산 볼거리

계방산에는 다섯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야생 동·식물들의 휴식을 위해 조용히!



물푸레나무군락지

물푸레나무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 사찰에서 승복의 매염제로 쓰였고 재질이 단단하여 맷돌 손잡이 등 농기구를 만드는데 쓰였던 나무입니다.



범꼬리군락지

6~8월경에 피고 꽃의 모양이 호랑이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범꼬리'라고 하며, 1,000m 이상의 높고 깊은 산에 주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매년 꽃이 피는) 풀입니다.



야광나무군락지

5월경에 피는 새하얀 꽃이 밤에도 빛을 낸다하여 야광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꽃이 피면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보여 5월에 계방산을 찾는 탐방객은 봄에도 설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권대감바위

계방산에 사는 권대감이라는 산신령이 칡덩굴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서 칡이 살지 못하도록 던진 부적이 변하여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부적을 던진 이후 계방산에는 칡이 자라지 않는다 고 합니다.



주목군락지

주목은 나무의 껍질이 붉어 '붉을 주'를 사용하여 주목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현재 계방산에 있는 주목군락지는 특별 유전자보호림으로 그 규모가 크고 상태가 양호하여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군락지입니다.

Odaesan National Park Office

보고! 듣고! 즐기고!

오대산국립공원은 오대산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천년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탐방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름도 머물고 가는 눈의 고향, 계방산
- 장 소 운두령 ~ 쉼터
- 소요시간 약 1시간 20분
- 주요내용 계방산의 유래와 동·식물 이야기
- 예약문의 계방산분소 033-332-6419
  오대산사무소 033-332-6417
  국립공원누리집 http://www.knps.or.kr
- 체 험 비 무료

계방산 오시는 길

영동고속도로-속사IC-계방산분소-이승복기념관-운두령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지엽골길1 (25312) 계방산분소
T.033)332-6419 F.033)332-6420

Nature, Our Future!

순백의 꽃을 볼 수 있는 곳, 구름도 머물고 가는 눈의 고향

계방산

오대산국립공원은 1975년 11번째 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홍천군 3개의 시·군에 걸쳐 있으며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동대산, 두로봉, 상왕봉, 호령봉 등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동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노인봉 아래로는 천하의 절경 소금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방산은 하얀 설경이 아름답고 강원도 첩첩산중의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ODAESAN NATIONAL PARK OFFICE



계방산은 '계수나무 계', '꽃부리 방'을 써서 계수나무 향기가 나는 산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봄꽃 군락지에서부터 겨울에 피는 눈꽃까지 사계절 내내 풍경이 아름다운 데다 산세가 완만하고 가파름을 고르게 갖추고 있어 산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바람과 눈꽃으로 계방산 정상은 설국이 됩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눈꽃터널을 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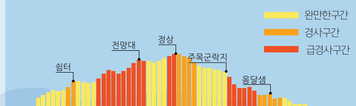
계방산 탐방로 안내

계방산은 겨울산행이 유명한 산으로 완만함과 가파름을 고르게 갖추고 있어 난이도에 따라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방산 1코스 8.9km/5시간 30분 1

운두령 – 물푸레나무군락지 – 쉼터 – 전망대 – 계방산정상 – 주목군락지 – 옹달샘 – 노동계곡

계방산 1코스는 운두령을 들머리로 해서 정상까지 오른 후 노동계곡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주목군락지를 지나면 위험한 내리막 구간이 나옵니다. 내리막 길 중간 중간에 암반이 드러나 있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덜지대에서 바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발목 부상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계방산 2코스 8.9km/5시간 30분 2

운두령 – 물푸레나무군락지 – 쉼터 – 전망대 – 계방산정상 – 권대감바위 – 야랫삼거리

계방산 2코스는 정상에서 탁 트인 설경을 맘껏 즐기고 야랫삼거리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계방산은 주변이 넓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집니다. 한여름에도 오후 5시 정도면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이전에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